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신뢰받는 시장 구현으로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 도약

머릿글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학천

2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서울대 명예교수 윤석철

커버스토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이영탁

나의 경영이야기 (재)상천에덴스포츠타운 CEO 김창호

지자체특강 솔로몬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동신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한자이정가연구원 원장 한자이

회원&연구원소식 / LMI & YOU

생각의 쉼터 (사)문학의집 · 서울 이사장, 시인 김후란

리더십이야기 / 조순칼럼

표지인물 이영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 사진 오경근 원장

2006 February

2

등록번호 [매체]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6년 2월 1일 발행인: 장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I) 주소: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동채국 B/D 5층 T: 2203 3500(F): 2203 1976 www.khid.or.kr 디자인: 디자인로드 www.cod2.com 인쇄: (주)동양인쇄 T: 462 8323

고객을 기쁘게 하는 서울도시가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두손을 모은
공경의 마음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www.seoulgas.co.kr



21세기에 들어선 인간개발

김학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간의 천성(天性)이나 본성(本性)을 모두 바꾼다는 도전은 문자 그대로 수 천년간 도전에 그쳤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구조변화와 그것을 추구하는 기술의 변화속도는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빠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범위 안에서의 '인간개발'이란 어쩌면 본성과 기술의 합리적 연결이나 조화를 꾀하는 작업쯤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70년대 중반, 유신정권의 우악스럽고도 교활한 언론인 숙아내기에 휘말렸던 필자는 그때, 그 어렵던 시기에 인간개발 주창자, 젊은 장만기 원장을 만났다. 30대 중반에 천직으로 알고 매달렸던 언론에서 밀려나 취업이나 장래는커녕 매일 매일의 평범한 삶조차 지탱하기 어렵던 시절 장원장은 이런 때야말로 사람 일깨우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생각을 개발해야 한다며 신념과 투지, 거기에 정말 놀라울 정도의 실천력을 보이며 '인간개발' 사업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었다.

지금은 출판으로 대성한 김언호 사장과 일찍이 언론학자로 자리를 잡은 김진홍 교수, 그리고 필자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경영인의 자기개발, 문화인식, 교육인식의 성찰과 개발이라는 실로 수 천년 이래의 어려운 과제를 다루는 일을 돕게 되었다. 사실 인류역사 이래의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창한 표현의 이면에는 그것이 사업으로 전망이 좋거나 더 속된 말로 수지를 맞추는 사업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다소 머뭇거리는 표정조차 짓지 않는 장원장의 소신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구석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2005년 송년모임에서 그런 느낌들을 재확인한 것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사실은 필자가 처음으로 인간개발연구원과 만날 때도 그 과업에 대한 거의 국가적인 필연성을 새삼스럽게 마음에 새기고 있던 시기였다. 내가 그런 일에 깊은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 서독으로 언론과 관련하여 연구할 수 있는 장기연수를 가서 언론보다 소중하게 배우고 온 두 가지 전신 때문이었다.

그것은 인문학고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술과 직업적 훈련을 시켜주는 학교까지도 졸업자격을 인증해 주는 사람은 교장이 아니라 윤리교사 또는 교목(校牧)이라는 점이다. 전문지식보다 '사람됨'에 관한 평가가 사회진출의 필수 확인 항목인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교육체계 아래서 길러진 평범한 생활인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에서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이다. 그와 같은 사회의 바탕에서는 입시지옥이나 사교육비도 생길 까닭이 없고 경영과 노동에 있어서도 현격한 계층화나 양극화가 생길 수 없는 것이다.

70년대 중반의 인간개발연구원은 이미 서구에서는 기본적 논리로 확립된 자기개발, 경영능력개발, 교육인식개발이라는 것발을 내걸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실로 맨몸으로 종종걸음을 하는 개발시기를 걸어왔다. 그 인간성 개발이 맞서야 하는 개념은 당선만을 위한 정치기술, 일회성 축제 기술을 겨냥하는 경영방식 그리고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는 교육경쟁을 부추기는 일 등이었다. 그래서 그 실천속도를 분명하게 가능하기는 어려웠지만 31년이 지난 지금 깊고 거대한 지식과 자본의 운영도 결국 '사람의 개발'이라는 과제의 하위개념이라는 의미는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그 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인간개발연구원이 세상에 알려진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이리라 믿는다. 인간성과 자기개발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영원한 커리큘럼이지만 소크라테스나 맹자(孟子) 이래의 그 영원한 교육과정에 집요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2005년 인간개발연구원의 송년모임 겸 사업보고회에서 필자는 이 나라의 중요 두뇌들이 거의 망라되어 세상을 지탱하는 그 어려운 사업에 공감을 표시하고 참여에 긍지를 느끼는 모습을 확인한 것은 참으로 큰 즐거움이었고 감동이었다. 세상이 바로 그 한발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다.

연구원과 장만기 회장,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커리큘럼을 지켜온 분들께 더욱 건투를 빌고 싶다. **人間**



김학천 교수 1941년 생 / 서울대 독문과 졸업 / 서울대 언론학 석·박사 / 동아방송 프로듀서 / 인간개발연구원 부장 /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원, 부설 교육방송원장 / 한국방송학회 회장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 한국방송협회 이사 / 한국콘텐츠산업진흥회 회장

2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 前 문화부 장관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 / 서울대 국문학 석사 / 단국대 국문학 박사 / 1956년 문학평론가로 등단 / 이화여대 부교수, 교수, 석좌교수 /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소장 /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논설위원 / 초대 문화부 장관 /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 사이언스 북 스타트운동 공동대표 <상훈>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일본 문화디자인 대상, 체육훈장 맹호장, 서울시 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외

<저서> 에세이 : 축소지향의 일본인, 소설 : 장군의 수염, 암살자, 전집 : 한국과 한국인, 이어령 전집, 이어령라이브러리 외



한비야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홍익대 영문학과 졸업 / 美 유타대 국제홍보학 석사 / 국제홍보회사 버스-마스텔라 근무 / 7년간 세계 오지여행 / 네티즌이 만나고 싶은 사람 1위, 닳고 싶은 여성 2위 / 여성특위 선정 신지식인 5인 / 문화일보 주체 평화를 만드는 100인 선정 <상훈> YWCA 젊은 지도자상

<저서>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 한비야의 중국견문록 외

<창립31주년 기념연구회>

디지로그시대를 앞서가는 한국인

1438회 2월 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우리는 인터넷으로 인해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가 구현됐지만 편리함이 곧 이상향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디지털 세상의 '모순'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새해부터 '디지로그(Digi-Logue)'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로그는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ue)를 합성한 말로 인터넷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후기 정보사회의 밝은 미래를 모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하나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가 첨단화될수록 인간의 본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아날로그에 대한 지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디지로그의 탄생 배경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인들이 후기 정보화시대의 정형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되는 서구 사회와는 달리 한국인들의 '우리'라는 상호성 속에 형성된 집단의 문화가 정보화시대의 특성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문화 예술계의 원로이자 석학인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을 초빙하여 다가올 디지로그시대를 전망해보고 이를 주도해 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1439회 2월 9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건 무한 경쟁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라고 배운다. 이런 세상에서의 생존법은 딱 두 가지. 이기거나 지거나, 먹거나 먹히거나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서로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 가진 것을 나누는 대상이었다. 세상에는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 같은 사람도 어떤 때는 강자였다가 어떤 때에는 약자가 되기 때문이다.

어릴 적 꿈꾸었던 '걸어서 세계일주'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7년간 세계 오지를 여행해 '바람의 딸'이라는 별칭을 얻은 한비야 선생이 지난 2001년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이라는 생소한 직함으로 국제 구호활동에 뛰어들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세계여행이라는 재미있는 일을 두고 힘든 일을 택한 이유에 대해 그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자유롭게 거침없는 그의 행로는 이 시대의 새로운 역할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제 '오지여행'이 한비야를 잇고 긴급구호 요원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한비야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을 초빙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돕는 지도 밖 긴급구호활동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래 조선일보 출판국장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몽골국립대학 칭기스칸 아카데미 명예박사 / 한국일보 사회부, 정치부, 편집부 / 조선일보 사회부·정치부 차장 / 주간조선 부장 / 조선일보 사회부장 / 조선일보 편집총괄 및 디지털미디어담당 부국장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대우교수

〈상훈〉 몽골정부 친선훈장

〈저서〉 밀레니엄엔 칭기스칸, CEO 칭기스칸-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전략, 우마드-여성시대의 새로운 코드, 유목민 이야기-유라시아 초원에서 디지털 제국까지

CEO 칭기스칸에게 배우는 21C 경영전략

1440회 2월 16일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뱌블룸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이라는 단어들로 요약되는 오늘날의 환경 하에서 개인과 조직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지 않으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조직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을 학습하거나 타인 혹은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가운데 '지금부터 800년 전에 21세기를 살다 간 사람들'로 회자되는 칭기스칸과 그와 함께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유목민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목민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실재 없이 떠돌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를 향해 질주하면서도 항상 긴장을 유지할 수 있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서 언제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광활한 대륙을 지배했던 이런 유목민의 전략을 오늘날 기업경영에 접목하자는 것이다. 칭기스칸은 단순히 역경을 이겨내고 정복자가 된 것이 아니라 '꿈을 공유'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겠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열린사고가 그를 정복자로 만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얼마 전 개인홈페이지로는 드물게 1년도 안 돼 누적 방문자가 500만명을 넘어선 'JR의 유목민이야기'의 주인공 김종래 조선일보 출판국장을 초빙하여 CEO칭기스칸에게 배우는 오늘의 경영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사장

한국방송대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 국제경영학 석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최고경영자 과정 제1기 / (주)한국신텍스 부사장 / BMW코리아(주) 상무이사, 부사장, 사장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이사 / 21C Executive Forum 회장 /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부회장 / BMW그룹 임원 (Senior Executive) / (사)다국적기업최고경영자협회(KCMC) 부회장 /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위원회 회장

〈상훈〉 연세대 경영대학원 2001 연세경영자상, 자랑스런 방송대인상 외

〈저서〉 나의 꿈은 Global CEO(공저)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1441회 2월 2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영속성을 추구하는 기업에 있어 '지속가능경영'은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려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데 기여한 한국 기업들 중 존경받으며 장수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적으로도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은 드물다.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단지 아시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는 일에 소홀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자국시장을 보호하려고 해 폐쇄적인 국가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기업이든 국가든 기존의 통상적인 전략이나 인사조직 체제로는 글로벌 단위의 경쟁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쟁사의 전략을 압도하기 위한 '나만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경영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조직 리더들의 의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수입차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BMW그룹코리아의 김효준 사장을 초빙하여 내실을 다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BMW의 올해 경영전략과 함께 한국의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세월 속에 생각하는 인생과 기업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

제143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겸 신년하례회 / 1월 5일(목)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인간 존재에 부과된 무거운 의미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자살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귀하게 길러졌으며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는 문화가 빈약하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적만 해도 우리 은하계가 우주의 전부로 배웠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우주에는 우리 은하계 말고도 또 다른 1000억 개의 은하계들이 존재하며 우리 은하계 속에만 존재하는 별이 또 1000억 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무수한 은하계와 별들 중에 인간과 같은 고급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현재까지 지구가 유일하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그렇기에 그 지구에서도 사실

상 제로의 확률을 뚫고 태어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감에 상당히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저 닥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삶을 생각한다. 이것은 곧 인간탐구의 문제이다. 나는 인간탐구에 관하여 인류가 낳은 스승을 모시고자 한다. 그는 바로 영국왕실로부터 영작(榮爵)을 수여 받은 대문호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Lord Tennyson) 시인이다. 그가 82세 때 쓴 'The Oak'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옮겨 보았다.

The Oak by Alfred Lord Tennyson **참나무 알프레드 테니스**

Live thy life, Young and old! Like yon oak, Bright in spring, Living gold.	그대들 인생을 살지어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저 참나무처럼 봄처럼 영롱하게 생동하는 금처럼
Summer-rich, Then, and then, Autumn-changed, Soberer-hued Gold again.	여름철엔 풍성하게 그리고 또 그리고 가을답게 변하여 취기(醉氣)에서 깨어난 해맑은 금으로
All his leaves Fallen at length, Look! he stands, Trunk and bough, Naked strength.	그의 모든 잎은 드디어 낙엽되었지만 보라! 늠름히 서있는 우람한 등치와 가지, 적나나(赤裸裸)한 힘!

인생도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사는 것

그의 서재 앞에는 Oak나무가 있었다. 그는 Oak를 통해 봄에는 싱싱한 실록을 피어내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단풍을 다 벗어버리지만 늠름한 등치와 가지에서 나오는 힘을 보면서 인생도 결국 4계절을 산다고 보았다. 처음 탄생해서 20년을 봄으로 보고, 그 다음 순서대로 20년씩 여름, 가을, 겨울로 보았다. 82세로 연륜에서도 최고의 선배였던 대문호 테니스는 시를 읽는 이에게 명령조로 인생을 젊어서나 늙어서나 Oak처럼 살아줄 것을 당부했다.

봄철의 Oak는 싱싱하기 그지없다. 여름철은 나무가 가장 왕성히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계절이다. Oak의 여름은 열심히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남의 양식이 된다. 자기가 잘 먹고 잘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이 남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사실상 인간사회의 최고 가치는 무엇일까? 가난한 시절에는 돈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사회의 최고 가치는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결실이 남에게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고용의 창출'이다.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일자리를 애타게 갈구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기업인들이 좀 더 기업을 키우고 회사를 성장시키면 그 결과는 일자리 창출로 나타난다. 고용창출은 구세군 냄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 영구적,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Sober와 Naked strength에 대한 탐구

그 다음 가을이 온다. 테니스는 가을을 'Autumn-changed Soberer-hued Gold again'이라고 표현했다. 내가 이 시를 처음 읽은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이 시를 달달 외웠지만 두 단어에 막혀서 의미를 몰랐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깨닫는데 20~30년이 걸렸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ober'이다. Sober가 대체 무엇이기에 82세에 인생을 달관한 경지에서 테니스는 우리에게 Sober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인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겠다. 마지막 연은 겨울이다. 겨울에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지만 그것이 바로 Oak의 겨울이다. 늠름한 등치와 힘있게 뻗은 가지를 가진 Oak를 보며 테니스는 'Naked strength'라는 표현을 썼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발가벗은 힘'이다. 이것이 두 번째 단어이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이래 깨닫는 데에 30년이 걸렸다.

인생과 기업에서 Sober해야 할 대상들

그럼 이제 과연 Sober가 무엇이고 Naked strength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과 기업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Sober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술에 취했다가 깨어난', '헛된 환상 혹은 유혹에 취해 있다가 깨어난' 바른 정신의 상태를 말한다. 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나는 사전에 나온 의미 그대로 직역했는데,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었다.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온 국민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생각한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당시 선수명단에 이동국이 빠져 있었다. 이미 국내에서는 유명스타였던 이동국이 빠진 것에 많은 스포츠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들은 히딩크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우리는 스타가 아닌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시 이동국 선수는 많은 오빠부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히딩크는 이동국 선수가 경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드리블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골문 앞에 와서도 동료선수에게 패스하면 득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신이 득점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다. 그렇다 보니 경기를 망치게 된다고 했다. 큰 선수가 되려면 오빠부대에서 Sober해야 되는데 그때 이동국 선수가 그렇지 못했다. 그의 동료선수들이 나라의 영웅이 되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데 그는 명단에도 끼지 못했으니 절치부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 그는 뛰어난 선수였다. 그는 결국 오빠부대에서 Sober해서 본프레레 감독의 황태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면 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신념에 빠질 때도 있다. 그 예를 중세 연금술사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연금술은 쇠나 구리 같은 보통 금속을 금으로 전환시키려던 노력이었다. 연금술사들은 그 노력을 7세기부터 17세기까지 무려 천년을 계속했다. 그들은 금을 만든다는 환상에서 Sober하지 못했고, 결국 그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면 된다는 신념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는 대부분의 일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는 국력 세계 9위라는 위상에 맞게 하면 된다는 노력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고급지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즉 연금술처럼 근거 없는 신념에서 Sober하지 못하면 급하게 돌아가는 세월 속에서 오히려 시간낭비, 자원낭비만 하게 된다. 기업에서는 대마불사가 근거 없는 신념이었다. IMF 구제금융 때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16개 기업이 부



동양에 있어서 대 스승인 공자는 인생을 연령별로 말씀하셨다. 논어를 보면 그는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고 30세에 자립을 하고 40세에 불혹이라 하여 유혹으로부터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테니스도 Sober라는 말을 Oak의 가을에서 언급했다. 그는 가을답게 변해서 어떤 유혹에서도 깨어나는 해맑은 색깔로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동서양의 대문호들의 생각이 이처럼 같았다. 이제 Sober의 의미를 이해하셨을 것이다.

'발가벗은 힘'이란 무엇인가

이제 오크의 겨울에 대해서 말해보자. 여기서 Naked strength를 깨닫는 것이 Sober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교직에 오래 있다 보니 선배 교수들이 하나하나 정년퇴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정년퇴임한 교수가 후학들에게 학문적인 심오함과 영감을 주고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면 후학들은 그가 옷을 벗은 후에도 계속 찾아가 여쭙고 상의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교수로서 옷을 벗자마자 고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선배들이 옷을 벗는 것을 보며 나 역시 결국 옷을 벗는데 그 때 나에게 학문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며 인간적, 정신적으로 남는 힘을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역시 옷을 벗는 것인데 그 때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고 떠날 수 있고, 떠난 뒤에도 국가의 원로로서 국민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원성과 의혹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발가벗은 힘'이 부족한 것이다. 인간의 육체적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도 결국 나이가 들면 벗어야 될 옷이다. 그러므로 외면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한다.

도가 났다. 그 이유를 찾으면 대마불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기업만 대마불사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조차 설마 저 회사가 망하겠느냐 하며 돈을 빌려주었다가 금융기관도 망하고 기업도 망했다. 근거 없는 신념은 Sober의 대상이다.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도 역시 Sober의 대상이다. 우리나라가 취업하기 힘든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 하게도 이직율이 매우 높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고는 '이렇게 벌어서 언제 집 사고 차 사느냐'며 일확천금을 생각한다. 우리 국민처럼 일확천금을 많이 생각하는 국민도 없는 것 같다. 강원도의 강원랜드나 인터넷의 경마장이 대성업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우리가 일확천금이라는 생각에서 Sober하지 못하면 안 된다. 태어나 65년을 살아본 결과 분명한 것은 하루에 벅돌 한 장씩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확천금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그 역사가 깊다. 노르웨이의 한 남자가 젊은 나이에 부인에게 금광을 발견하면 돌아와 호강시켜주겠다고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나 실제 남편은 방향만 하다가 지치고 늙은 모습이 되어서야 부인에게 돌아왔다. 평생 해로하지 못한 채 그 부인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난 뒤에 말이다.

진혼곡은 원래 왕족이나 귀족이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될 때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를 찾아가 부탁하던 장례식 음악이다. 그처럼 특정인의 장례식에 쓰던 곡이기에 그 곡의 가치가 높지 않다면 그대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역시 특정인의 진혼곡이었다. 그러나 이 곡은 진혼곡에 사용하고 난 뒤에도 음악으로서의 Naked strength를 가져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명곡으로 남아있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이다. 링컨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연설문은 전 세계 어느 중·고등학교에서나 볼 수 있다. 그만큼 위대한 가치를 가지는 이 연설문은 게티즈버그 전투 때 전사한 이들을 위해 헌정한 2분 짜리 스피치이다. 이러한 위대한 스피치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일과성 행사의 옷을 벗은 후에도 영원히 살아남는 힘은 오페라에도 있다. 수에즈운하는 1869년에 개통되었다. 10년 공사 끝에 이루어진 성과로 수에즈운하는 당시 인류에게 주는 최대의 혜택이었다. 이전에는 아시아와 유럽간 화물운송을 하려면 아프리카를 돌아와야 했다.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곡식을 가져갈 수는 있어도 신선한 야채는 가져가지 못했다. 그 결과 괴혈병에 걸려 죽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수에즈운하를 개통하면서 이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다. 수에즈운하의 개통을 대대적

으로 경축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AIDA)'이다. 그 속에서 트럼펫 소리만 들어도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는 기분이 절로 든다. 것처럼 수에즈운하 경축행사용이었던 아이다는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오페라 자체의 위대한 힘 즉, Naked strength는 남아 불후의 명작으로 살아있다.

그럼 이제 인간으로 들어가 보자. 옷을 벗어 놓은 후에도 남아있는 Naked strength는 무엇인가 곰곰이 따져보았다. 존경, 실력, 인격 그리고 여기에 인간미가 들어갈 것 같다. 인간미는 곧 인간적 매력이고 이는 다시 힘이 될 것이다. 인간미의 '미'는 '아름다울 美'자를 쓴다. 옥편에서 이를 찾으면 아름다울 미 하여 양(羊) 부(部)로 들어간다. 양 부에 들어가서 큰 대자에 세 개의 획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름다움과 양이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제물로 바쳤다. 양은 희생의 제물로 일컬어지고 그래서 희생양이란 표현이 오늘날에도 많이 쓰인다. 즉, 양은 자기희생을 의미한다. 요즘은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희생은 없다. 지금의 자기희생은 헌신을 의미한다. 동창회를 가보면 역시 어려서 이웃을 위해, 동창을 위해, 학



교를 위해 자기희생을 했던 아이들이 성공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의 작은 희생이라도 따른다면 절대 안 하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고생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가라고 했을 때 동료와 조직을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헌신적 생활태도이다. 이러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미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가치(V) > 가격(P) > 원가(C)

생존부등식은 인생과 기업에서 동일하게 적용

기업을 보자. 국토농신한중권연구소에서 지난 1995년 2월 9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주가 상승률을 조사했다. 결과를 보니 당연히 삼성전자가 1등일 줄 알았는데(749% 증가)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라면 만드는 회사가 1297%로 압도적으로 1등을 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경영학 이론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만 Naked strength만이 이것의 설명이 가능하다. 농심의 주력제품은 '신라면'으로 한 봉지의 가격은

600원이다. 농심의 시장조사팀은 보통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으로 점심 시간에 조사를 나간다. 가보면 점심으로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조사원들은 만약 신라면이 1000원으로 올라도 먹겠느냐고 묻는다.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오르면 먹겠느냐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그래도 먹겠다고 답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객은 제품 혹은 서비스에서 느끼는 가치 때문에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입한다. 소비자 들이 신라면을 먹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신라면은 충분히 한 끼 식사대용이 된다. 둘째, 편의성이 있다. 셋째, 얼큰하고 시원한 한국 전통의 맛을 가진다. 조사원들이 살펴보았을 때 신라면이 만약 1000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라면이 10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먹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재 신라면은 600원에 팔리면서 400원이라는 잉여가치를 가진다.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기부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치가 가격보다 크다는 부등호가 나온다. 또한 부등호로부터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 양이 소비자의 순 혜택이 된다.

고객이 100원의 가치를 느끼는 제품을 100원에 팔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Naked strength가 제로가 되고,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진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는다고 치자. 그런데 자신이 100만원만큼의 일을 했기에 100만원을 받았다고 몇몇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다. 100만원이라는 돈은 기업이 직장인에게 한 달간 일한 것에 지불하는 값이다. 그러나 직장인은 100만원을 받고 일한다 하여 100만원만큼의 일만 해서 안 된다. 그 이상으로 열정과 지혜를 갖고 일의 퀄리티를 높여야만 기업은 직원에게 주는 급여보다 10배 100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느끼는 가치가 상대방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클 때 이것이 바로 Naked strength이고 월급을 받은 뒤에도 계속 남아있는 가치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직원은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 남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생존부등식'이라고 한다. 이혼도 이 생존부 등식으로 설명이 된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사랑의 퀄리티를 가진다.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퀄리티가 들어간 노력보다 적게 느껴지면 불만족하고 불화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다른 쪽의 부등호는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까? 그것은 원가절감으로 보충할 수 있다. 택시를 타던 것을 버스를 타는 식으로 절충하여 두 개의 부등호가 만족될 때 인생이 행복해진다. 기업과 인생이 근본적으로 같다.

마지막으로 내 강의가 남기고 싶은 여운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완벽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항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항상 Sober해야 한다. 이것은 죽기 전까지 생각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인생과 기업에서 이렇게도 중요한 Naked strength를 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생존부등식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가치가 상대가 치르는 값보다 크지를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人間)

신뢰받는 시장 구현으로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 도약

이영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사진 오경근 원장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전망과 국내외 투자기관의 투자확대로 인해 올해도 한국 증시는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27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이 통합하면서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걸었던 통합거래소는 지난 1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56년 불모지에서 증권거래가 시작된 이래 50돌을 맞이한 우리 증시는 작년 연말 기준 상장기업 1,620개사에 시가총액 세계 15위, 거래대금 세계 9위에 오르는 등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는 단순한 주가상승이 아닌 시장이 상승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시장 신뢰도가 높아졌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

통합거래소 출범과 함께 취임한 이영탁 이사장은 독학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학구적인 인물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출발해 30여년간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국내외 자본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동북아 중심 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006년을 한국 증권시장 100년의 역사를 위해 다시 출발하는 뜻깊은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이영탁 이사장을 만나 거래소 통합 후 시장의 변화와 발전상을 짚어보는 한편 2006년의 계획과 전망을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영탁 이사장 1947년 생 /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 美 윌리엄스대 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 행정고시 7회 합격 / 경제기획원 사무관, 동향분석과장, 종합기획과장 / 재무부 증권국장, 경제협력국장, 국제금융국장,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 대통령비서실 재경비서관 / 교육부 차관 / 제16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 경희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 KTB네트웍 회장 /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부이사장 / 제7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2005년 1월 통합거래소 출범과 함께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2005년은 우리 증권선물시장 50년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한 해였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되던 상장기업수,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등 각종 기록이 경신되었으며, 간접투자 정착으로 기관투자자가 외국투자자와 함께 시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았어요. 이는 향후 우리 시장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는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통합원년을 맞아 노사 합의에 의한 직급, 보수 및 복지를 통합하고 4개 기관별 전산센터 장비 등을 부산본사 및 서울사옥에 집중 배치하는 등 IT부문의 통합도 끝마쳤습니다. 통합원년으로서 구조조정 등 아픔도 겪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지만 통합에 따른 비용 시너지 효과와 함께 고객 서비스 개선 등 기대 이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2006년 주요사업과 방향을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올 한 해는 통합원년의 역점사업 성과를 가시화 시키고 거래소의 비전인 'Global :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융투자회사 출현 및 파생상품 규제완화에 대비해 선진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도입함으로써 동북아 역내 시장 간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등 외국기업 상장을 가시화 시키고 해외시장과의 연계거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작년엔 마련한 KRX IPO(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공개) 추진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상장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위해 거래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및 증권선물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참가자 의견을 반영한 적기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시장활성화와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장애 없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신뢰받는 시장 구현에 힘쓸 것입니다.



▶ 2005년 1월 27일 증권선물거래소 창립 기념식

주가가 1300대에 진입하는 등 고주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당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증권선물거래소 복경상장설명회

지난해 주가는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주가상승을 이용한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 주식시장이 재평가되는 전환점이자 선진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기업의 수익창출 능력,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회계관행 및 지배구조 개선, 주주중시 풍토 정착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죠. 또한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 전환하는 선진국형 투자문화가 정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의 투자기관의 66.7%가 한국증시에 대한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도 한국 증시는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우리의 주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돼야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증권시장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적정 주가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 우리 증시가 타 국가에 비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수익비율(PER)이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PER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증시 평균이 11, 싱가포르 14.4, 일본이 34.9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시 상장했다면 일본에서는 3배 이상 주가가 높다는 거죠. 이 같은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신뢰지수 개발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거래소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에 아직 외국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에는 32개의 외국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거래소의 국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그 중 외국주 상장은 국제화 핵심



▶ 2006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



▶ 제24회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증권거래소 연맹(EAOSF) 총회



▶ 통합거래소 상장기업 엑스포

사업 중 하나죠. 그 동안 제도개선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상장허용 등 외국주 상장관련 인프라 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중국기업의 국내상장을 목표로 작년에만 중국 심양, 북경, 청도 등에서 7회에 걸쳐 상장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장관심기업을 발굴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상장 대기 중인 기업이 3,000개나 되는데

그 동안 홍콩이나 싱가포르 증시로 많이 나갔어요. 이 물량을 우리가 소화하지는 거죠. 특히 작년 12월에는 중국 CSRC(중국 증권감독관리위)를 방문, 상푸린 주석을 만나 실무자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기업의 상장시기는 정확히 언급하기 어렵지만 금년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에게는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물량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한편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동아시아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거래소 기업공개(IPO)가 큰 이슈입니다. 추진과정과 전망은 어떤지요.

상장을 통해 거래소의 비전인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유구조 개편, 기업가치 및 경영효율성 제고, 거래시스템 첨단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외국기업 상장, 해외시장 연계 및 제휴 등 증권선물시장의 국제화를 앞당겨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거래소의 경우 주식회사 전환 후 1~2년 이내에 상장을 완료하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5개 거래소 중 뉴욕, 도쿄 등을 빼면 대부분이 상장을 완료한 상태죠. 우리도 우리 자본시장의 뛰어난 잠재력을 상장을 통해 조기 현실화시킬 경우 KRX는 초우량기업으로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상장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주,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장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 증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증권산업의 신뢰성 회복이 중요해요. 증권산업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규제의 적정성 확보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업계의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 위탁매매를 점차 줄이고 수익성 높은 M&A, IPO 등의 IB(Investment Banking)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증권회사들의 지속적인 규모 확대 및 업무능력 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외국계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국내 증권사는 규모 및 인력 면에서 열세에 있어요. 현재 국내 상위 5개 증권사의 총자산은 평균 34억달러로 미국의 골드만삭스(4,038억달러)의 1%에도 못 미치고, 직원수도 평균 2,394명으로 골드만삭스 19,476명에 비해 약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사장님은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출발해 30여년을 공직에 몸담은 정통관료 출신인데요. 평소 일에 대한 철학이 궁금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혁명, 자유화의 물결이 어우러져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



▶ 2005년은 한국 증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주가지수최고치 경신

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곳곳이 헤쳐갈 수 있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 즉, '예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평소 30여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한 인간개발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정부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게 마련이죠. 이처럼 인재의 중요성이 기업과 사회발전에 있어서 쟁점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개발'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합거래소 내에서도 현재 금융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내 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양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올 3월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동북아 금융중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 거래소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사장님은 바쁘신 중에도 여러 저서를 집필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요. 소개하고 싶으신 책이 있으면 내용 좀 들려주시죠.

고주가 시대를 맞이하여 증시 저변확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시장의 신

뢰조성을 위해 최근 증권선물거래소가 발간한 <시민을 위한 증권투자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일반 투자자들이 올바르게 증권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기초지식과 바람직한 투자자세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 투자지침서입니다. 이 책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기본적인 증권투자 지식과 올바른 투자관을 갖추고 투자에 임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책 판매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또 취미생활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근무시간을 나누어 쓰다 보니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취미 삼아서 테니스와 등산을 즐겨 합니다. 얼마 전에도 직원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금정산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몸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이런 때일수록 한번씩 산에 오르면 굳어있던 몸이 활짝 기지개를 펴는 것 같아요. 물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연구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기업 경영자와 지도자에게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인간존중의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오신 장 회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사회가 현재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간개발연구원과 같은 인력개발기관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폭 넓은 계층 및 세대를 포용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사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걸어서 하늘까지...

(재)상천에덴스포츠타운 CEO 김창호

인간의 오랜 염원인 불로장생에 대한 욕구가 과학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을 늘여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의 황혼을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으로 영위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끈임 없이 하고 있다.

주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산과 들로, 강과 바다로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체험하기 위한 여가시간을 갖고 있다. 얼마 전부터 불기 시작한 '웰빙'은 신체운동에 대한 욕구를 더욱 부채질하여 '몸짱'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또한, 많은 스포츠클럽과 스포츠 매니아들이 형성되어 건강을 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미진한 상태에서 정책적으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일부도로가 정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가평에 위치한 (재)상천에덴스포츠타운



▶ 에덴스포츠타운에서 본 유스호스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스포츠복지사업

이러한 욕구와 수요를 미리 예측한 것일까? 46번 국도인 경춘선을 따라 춘천방향으로 1시간정도 가다보면 하늘높이 솟은 에펠탑을 보게 된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위치한 (재)상천에덴스포츠타운이다. 바로 이곳 50만평 부지에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스포츠허브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이 시설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에덴성회에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신앙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스포츠복지사업이다. 신앙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정신은 건강한 육

체를 바탕으로 시작하므로 인간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그 기반 위에서 종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지금의 시설을 건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 철학을 기초로 임직원이 하나 되어 건설과 운영에 열정을 다하여 온 시설의 결과이다.

국내 최대규모의 시설로 다양한 욕구충족 가능

상천에덴스포츠타운의 시설은 수영장, 볼링장, 실내체육관, 실내테니스장, 종합운동장(국제규격의 천연잔디축구장,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우레탄 8레인, 400트랙), 축구박물관, 탁구장, 당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 조깅코스, 서바이벌게임장, MTB코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실외골프연습장(100타석, 천연퍼팅장 2면, 비거리 300M) 등이 있다.

놀이시설은 바이킹, 회전목마 등 10여종이 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옆에 동물전시장과 함께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다. 유스호스텔 내에는 체육시설, 야외활동 시설, 강당, 세미나실, 국제컨벤션센터, 식당, 자가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개인 및 단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어 개인의 휴식공간이나 학생들의 수련활동, 수학여행, 단체MT, 기업연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절실해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광레저산업을 통해 지역

을 특성화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노력에 일조하여 상천에텐스포츠타운은 복합스포츠투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동안 지역발전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주변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있으며, 그 결과로 가평군에서도 군 성장동력산업으로 스포츠산업을 선정하여 사업기획을 추진 중에 있다.

스포츠투레저관광산업은 지역소득 및 고용효과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게 되며, 관광객의 증가와 관광소비는 직·간접적으로 지역의 관광수입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개발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광개발은 지역의 토지를 이용하게 되며, 또한 노동력의 필요와 자본의 유입 등으로 지역의 관련 사업이 발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의 증대와 스포츠투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직·간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게 되며, 세수의 증대는 공공서비스의 향상 즉,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 도로, 상수도, 전력공급, 인터넷 등 생활환경의 변화와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대도시와 지방간의 균형 잡힌 문화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에텐스포츠타운의 예성로 벚꽃길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투레저관광산업에서 스포츠활동을 중심으로 특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투자비용 조달문제, 시장세분화에 따른 주고객층 감소, 소비자의 욕구수준 파악과 이에 대한 마케팅전략, 시대를 반영한 재투자 및 리모델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상천에텐스포츠타운에서는 스포츠전문가, 관광전문가, 정부정책 및 행정전문가의 지식과 자문을 통한 전문적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는 일을 지역경제 주체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상천에텐스포츠타운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헌

상천에텐스포츠타운이 위치한 가평은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정부의 규



▶ 천연잔디의 종합운동장

제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구역, 전원휴양벨트, 상수도 보호지역에 포함되어 지역개발에 너무나 많은 제한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가평은 지역경제 발전의 의욕이 상실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것은 (재)한국기독교 에텐성회에서 스포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게 되면서부터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레저·스포츠 문화에 대한 체험의 기회에서 소외 받아온 지역민들에게 대도시의 사람들과 같이 균형 잡힌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결국 가평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스포츠산업을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천에텐스포츠타운의 무한한 영역의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한다.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투레저관광단지로 발돋움 할 것

2009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경춘전철이 개통하게 되면 서울과의 거리가 약 40분 정도로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향상되며, 이로 인해 지역의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병원시설이 완공되면 지역민을 위한 일반진료는 물론이고 종합스포츠투레저시설에 위치한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포츠 의학의 전문성과 접목시켜 운동처방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사회현상에 발맞추어 실버계층을 위한 장수 건강프로그램도 준비중이며, 각종 스포츠 관련 문화행사 등을 치를 수 있는 문화컨벤션센터, 식물원, 산악자전거, 승마장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계획 중인 3단계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3단계 공정이 완료되면 아시아 최고의 전문 스포츠투레저관광단지로 발돋움할 초석을 다질 것이다.

이를 위해 상천에텐스포츠타운 350여명의 임직원은 각각의 사업부에서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人間**



우리 농업의 생존전략

김동신 솔로몬기업전략연구소 소장

제19회 진도군 '진도학당' 1월 12일(목)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 2월부터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현재 20회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진도학당'은 본원과 진도군(군수 김경부)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한 교육혁신 프로그램입니다. 진도학당은 회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교류의 장이 되고 있어 참가자들에게 도덕적 가치관과 균형적 감각의 소양을 함양할 뿐 아니라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희망찬 진도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진도학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강사진을 통해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1월 12일 "우리 농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제19회 강연을 해주신 김동신 소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저는 농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정작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훈수를 더 잘 돕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발 물러서서 농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으며,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비교적

양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 이제는 가치전략이다'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진도 하면 예향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로 풀어보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김동신 소장 1951년 생 /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 경영학 석사 / 은행, 증권투신사 부장 / 벤처창업투자회사 부사장 / 한국벤처농업대학, 한국농촌관광대학 교수 / 한국컨설팅협회 기업평가 전문위원 / 해외투자기관협의회 전문평가위원 / 삼성경제연구소 M&A 및 기업평가포럼 이사 / 농림부 벤처농업 심의위원 / 한국벤처농업포럼 이사

여러분들이 농사짓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농사 때려 치워야지 하는 마음의 갈등과 흔들림 속에서 살았고, 수입개방 때문에 눈물에 땀에 비에 장마에 젖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삶을 사는 과정에서 꽃은 피워야 합니다. 자식은 키워야 하고, 삶은 좀 윤택해져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의 시대 어떤 키워드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변화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변해야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 철학, 사명,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시대에 어떤 키워드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경쟁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국경은 무너지고 시장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으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시장의 기능만 점점 확대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가치추구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이 'How many' 생산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지금부터는 'How to' 어떻게 팔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무조건 '좋은 농산물'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가치 있는 생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농사지를 땅, 노동력, 자본만 있으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The readers take all',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시대입니다. 힘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때문에 정보와 지식을 쌓으려면 부단한 창조력과 상상력, 전략, 비즈니스 감각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소비자의 변화를 읽고

생산자가 아닌 사업가라는 인식전환이 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농사를 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누군가는 사먹겠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농업은 소비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농산물이니까 사먹겠다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소비자는 내게 필요한 좋은 농산물만 삽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들의 변화입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선 소비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소량빈매'의 형태를 취합니다. 물건을 조금씩 자주 산다는 말입니다. 문밖에만 나가면 백화점, 할인점 등에 싱싱한 야채, 식료품이 항상 넘쳐나는데 굳이 사다놓고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변화를 파악하고 소포장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쌀인데 포장에 발달해서 20kg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너무 큼니다. 도시 가정에서 맛벌이하고 자식들 성장하면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것부터가 소비자의 변화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농사짓는 농업인, 생산자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 사업가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기업가나 사업가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팔아야 성공합니다. 잘 팔았다는 것은 돈을 벌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겁니다. 정조 때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유명했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인삼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는데, 죽을 때 "내가 큰돈을 벌고 보니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남긴다는 말은 오늘날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말입니다. 임상옥이 중국에 갔다는 것도 오늘날 시장조사를 한다는 것과 같아요. 물건을 잘 만드는 것보다 고객을 만족시켜서 고객의 욕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 농업의 주체가 바뀐 사실, 농업인이 생산자가 아닌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승과목입니다. 그 이유를 아프리카 사냥꾼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인과 일본인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어요. 사슴을 잡으려고 동굴에 총을 겨누고 있는데, 사슴이 아닌 사자가 튀어나와 두 사람은 걸음이나 살려라 하며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체구도 작고 발이 빨라 재빨리 도망가는데 덩치가 큰 미국인은 뒤에서 사자가 쫓아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피를 내어 얼른 무거운 신발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운동화로 갈아 신고 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살았어요. 나중에 일본인이 미국인에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왜 운동화로 갈아 신었는지를 묻습니다. 미국인이 답하기를 "내가 운동화로 바꿔 신은 것은 사자보다 먼저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먼저 도망가려고 바꾸어 신은 것이오"하는 겁니다. 사자는 앞에 가는 사람까지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뒤에 처진 사람만 잡아먹지 않느냐. 내 경쟁자는 사자가 아닌 당신이다. 내가 당신보다 한발만 앞서면 사자는 뒤에 처진 당신을 잡아먹을 것이고 나는 산다. 이것이 바로 변화와 경쟁의 원리입니다.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진도만의 무기를 찾아야

여러분에게 변화하라는 말은 일등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꼴등을 면하라는 말입니다. 사자 밥이 안 되려면 내가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대한민국 타 지역의 농업인도 아니고 전라남도 다른 군의 농업인도 아닙니다. 바로 진도군 안에서 같이 농사짓는 여러분들끼리가 경쟁자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진도군에서 이겨야 전라남도에서 경쟁력을 갖고, 전라남도에서 이겨야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수입농산물이 밀려와도 끄떡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 성공했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도군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업을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진도만의 무기를 찾아내야 해요. 인생에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무수한 답 중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답은 유연성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모택동의 16자 전법이라고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후퇴하고, 적이 멈추면 괴롭히고, 적이 피하면 공격하고, 적이 퇴각하면 추격하는 게릴라전법이 모택동의 전략입니다. 바로 농업에 필요한 전략입니다. 무조건 부딪쳐서 싸울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은 피하고 붙을 건 붙어서 싸워야 해요.



이것이 전략이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큰 소를 고삐에 묶어서 말뚝을 박아 두면 소는 그 안에서만 풀을 뜯습니다. 힘이 없어 도망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소에게 말뚝은 뺄 수 없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 농사를 못 짓겠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수입 개방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배우고 나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릅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피해를 겪어봐야 어떻게 태풍에 대비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번에 있었던 폭설도 많은 피해를 봤지만 배운 것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룡과 바퀴벌레는 지구상에 동시에 태어났지만 공룡은 지구상에서 멸망한지 수 만년이 지났고 바퀴벌레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공룡은 생쥐가 꼬리를 굽아먹으면 전달속도가 느려서 15초 후에 머리로 느낍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살충제로 뿌려도 알을 뱉 암컷은 죽으면서도 알을 낳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는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습니다. 이미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변화에 빨리 적응한다는 말입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지배하는 시대

농업에도 가치를 부여해야

과거에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했고, 오늘날은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빠르기에는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농업보다 우리나라 농업이 유리합니다. 오늘날은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농업은 미국, 캐나다의 농업이 아니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작은 나라의 농업입니다. 네덜란드

는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면적에 농업인구가 60만명 밖에 안 되지만 농산물 수출액이 작년도에 560억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1억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농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이 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1세기의 트렌드는 가치의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가치가 이것저것 뒤섞여 하나로 뭉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기능과 기술 중심에서 감성과 디자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그렇게 가치를 합쳐야 합니다. 농업이 농업 혼자만 존재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옛날에는 높은 산의 소나무처럼 정절을 지키는 것이 훌륭한 인생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대나무처럼 얹혀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치의 컨버전스입니다.

예전에는 양으로 농업을 해왔지만 지금은 질을 따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품질을 가지고 제품을 따지지 못합니다. 질은 기본이고 가치를 넣어야 합니다. 가치를 넣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창조를 하고, 창조를 위해서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농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던 시절에서 같은 값이면 맛있는 것, 칼로리 낮은 것, 영양이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리다가 오늘날에는 무공해식육과 친환경입니다. 같은 값이면 농약을 안친 것, 비료를 안준 것을 찾습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 가자는 것이 요즘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블루오션시대'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이 없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충주의 한 사과를 모양이 네모라는 특징 외에도 '대학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험생들에게 판매했는데 이 사과가 동이 났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똑같은 감귤에 모양만 하트로 바꾸어서 '러브감귤'이라는 이름으로 신혼여행객들에게 비싸게 팝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창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면 혁신이 되고 변화의 자료가 됩니다. 보고 배우면서 농업인의 가치도 업그레이드됩니다.

위기가 기회

스스로 계란껍질을 깨고 병아리로 성장해야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포도농사를 포기한 한 농가가 여름에 수확해야 하는 포도를 겨울까지 수확하지 않았다가 우

연히 눈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건포도처럼 변한 포도의 맛을 보고 와인을 만들어 유명해졌습니다. 망했다고 포기했던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농업으로 꼭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농업인들도 벤처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농사라는 어려운 길을 택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 상품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나는 경쟁자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화 되는가.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혁신을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시장의 변화를 읽어서 믿을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 모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변화를 아는 농업인, 정보와 지식을 아는 농업인, 마케팅 전략을 아는 농업인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을 즐기십시오. 통상 개방을 하면 외국물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내 것만 빼앗긴다고 생각합니까. 팔려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즉, 스스로 계란껍질을 깨고 나면 살아있는 병아리가 되지만 깨뜨려지면 계란 프라이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서 나오면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병아리가 되어서 씨앗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을 깨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결국 농업도 사람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희망입니다.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를 읽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人間)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용서할 수 없는 흑인"이 세워놓은 복싱왕국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미국은 백인의 나라인가 흑인의 나라인가. 미국을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을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미국의 남부 텍사스주 달라스, 휴스턴, 웨이코 등을 매년 한번 이상 여행했던 경험을 회고해보면 미국은 '흑인의 나라'라는 인상을 강하게 갖게 된다. 미국을 '아메리카합중국'이라 부르듯이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모여 인종백화점을 이루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백인들의 나라'이며 동시에 '흑인들의 나라'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흑인들 중에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과 교육자로 잘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카바가 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이 만들어낸 전쟁영웅 전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과 흑인여성으로 현 국무장관이자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가 흑인의 나라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들이다. 복싱 헤비급 챔피언인 알리나 타이슨 등은 미국을 복싱 분야에서도 세계 강국으로 굳게 세워놓은 영웅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스포츠 세계는 거의 흑인 챔피언들이 제패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 예술분야, 음악 그 중에서도 특히 흑인 가수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또한 TV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의 활약과 명성 그리고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미국 복싱 역사상 흑인 최초로 세계 헤비급챔피언에 등극한 사람은 1908년 잭 존슨이었다. 흑인챔피언들이 다 그러하듯이 존슨도 빈곤탈출을 위해 권투를 시작했다고 한다. 존슨은 '무적의 주먹'으로 승승장구하며 1903년 세계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당시 챔피언인 제임스 제프리스는 "흑인과는 싸울 수 없다"며 존슨의 도전을 거절했다. 그러나 기회는 1908년 12월 26일 미국이 아닌 호주 시드니에서 찾아왔다.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매치에서 존슨은 당시 챔피언이던 토미 번스를 꺾고 역사상 첫 번째 흑인챔피언이 되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당시 흑인챔피언은 비록 와일드한 복싱 세계이긴 해도 백인우월문화 속에서 백인 챔피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거리였다. 그래서 존슨은 '위대한 백인의 희망'을 되찾겠다는 많은 백인 선수들과 생명을 건 혈투를 감수해야 했다. 존슨의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싸우기를 거절했던 전 챔피언 제프리스까지 복귀해 1910년 존슨에게 도전했지만 15라운드에서 KO패를 당하고 말았다. 백인의 복싱 영웅 제프리스마저 존슨에게 패하자 미국 각지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었고 링 밖에서도 존슨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물론 여배우 등 백인 여인들과의 애정행각 그리고 그의 결혼이 백인들을 광분케 만들었다고 한다.

첫 흑인챔피언이 돼 백인의 적이 된 존슨은 마침내 1913년 백인 여성들과의 관계로 인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해외로 도망쳐 1915년 쿠바의 하바나에서 백인 선수 제스 윌라드에게 챔피언 타이틀을 내주고 말았다. 1920년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체포돼 1년간 복역하면서 그의 화려했던 복서 경력도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백인의 냉대 속에서 존슨처럼 가난을 극복하고 챔피언의 꿈을 꾸어온 흑인 복싱 선수들에 의해 미국은 세계 복싱강국으로 존재하고 있다. 1913년 유죄판결로부터 90년이 지난 2004년 4월 미국 상원의원 존 매케인은 '용서할 수 없는 흑인' 잭 존슨의 사후 사면을 요청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존슨의 실화는 미국의 복싱 역사를 통해 보여준 흑백간의 싸움이지만 흑인들의 약진현상은 스포츠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콜린 파월은 미국의 대선주자로까지 부각될 만큼 흑인들의 울분과 분노를 비전과 꿈으로 승화시켜 성장한 인간 승리자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숨은 비결은 없다. 성공의 비결을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성공이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힘들게 일하고 실패로부터 성공의 교훈을 얻어내고 자기가 모시고 일하는 뒷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버티는 인내력이 남아주는 결과이다." 이것이 파월의 성공철학이다.

정치리더십의 챔피언 파월의 성공철학에서 미국의 첫 흑인챔피언 존슨의 역경에 도전하는 생생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미국을 '흑인의 나라'로 생각하게 할만큼 흑인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결국 고생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그 존재 속에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다. 자기의 인간 잠재력을 인지하고 그 위에 생생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을 때, 순탄한 환경보다는 역경의 환경에 놓일 때 씨앗은 발아되고 무럭무럭 자라서 그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게 한다.

오늘의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부를 창조하는 챔피언이 되고 싶은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부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내면에 간직한 부모부터 큰 이익을 얻어내 풍부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 모든 부의 가능성을 낭비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독자 여러분은 2006년 한해를 더욱 큰 부자로 사는 한해가 되기 바란다. **人間**



나의 동반자, 정가(正歌)

한자이 한자이정가연구원 원장



음악은 사회의 바로미터

공자(孔子)는 논어(論語) 팔일(八佾)편에서 시경(詩經)의 첫 번째 시 관저(關雎)를 평하며 "낙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상(哀而不傷)"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래가) 즐겁되 음란하지 않고 애처롭되 화평을 잃지 않는구나"라고 갈파한 성현의 말씀은 요즈음 우리음악을 꾸짖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의상, 높은 질의 음향, 화려한 조명, 거대한 무대설치물 등으로 장식된 현대음악은 우리의 눈과 귀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음악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양함과 눈부심에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빠른 템포 혹은 과장된 희로애락의 표출일 뿐입니다. 의도적 음향효과나 심한 몸짓 등을 담은 발산음악은 자주 집단적 흥분을 유발합니다. 그러한 흥분이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저 음악은 자기 수양을 지향하는 수렴음악과, 희로애락에 마음을 흠뻑 적시는 발산음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자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음악이라고 이해한다면, 후자는 외부와 소통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란 모름지기 이 양자의 조화태(調和態)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의 음악은 서양음악이고 우리네 음악이고 간에 모두 후자에, 그것도 절제를 잃은 발산음악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음악의 가락과 리듬은 내 안에서 메아리치는 소리를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음악은 그 음악이 속해 있는 사회의 얼굴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그 사회의 수준과 건강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시(詩)는 인간의 풍부한 정서를 깨워 불러내며, 예(禮)는 개인과 사회의 행동규범을 확립하고, 악(樂)은 인격을 완성하게 한다.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 論語 泰伯)"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음악이 정서교육과 규범교육을 거친 인간을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며 실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가곡의 정명(正名)

모두(冒頭)에 음미해 본 명시 "동창이 밝았느냐..."를 '가곡(歌曲)'으로 부른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가곡 하면 으레 서양 낭만파 음악의 예술가곡, 예를 들어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나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이식된 서양식 가곡, 다시 말해 흥남파의 '봉선화' 류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노래' 즉, 우리 전통성악의 한 장르를 지칭하는 가곡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곡 앞에는 할 수 없이 전통이란 말을 붙여 '전통가곡'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천자문 읽을 만한 나이의 어린아이면 자연스레 알던

"동창(東窓)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 소치는 아희
 높음 상기 아니 일었느냐 / 재 넘어 사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허느니."

조선 숙종 때 문신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의 시(詩)입니다. 부지런하고 소박한 농촌의 삶을 꾸밈없이 묘사한 절창으로 조선시대 문학의 백미인 이시를 평시조가락으로 부르노라면 머리가 쇠락해지고 가슴이 훈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느낌이 옛 선비들의 향다반사였던 '시 지어 가락에 얹어 읊던' 풍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이 시는 가곡의 선율에도 올려 부릅니다. 잔잔하면서도 힘이 있고 화평하면서도 웅장한 "동창이 밝았느냐..."를 담은 남창 가곡 초삭대엽(初數大葉)은 언제 들어봐도 매력적이고, 그야말로 여유롭고 달관한 선비의 멋이 뚝뚝 흐르는 노래입니다.

가곡의 모습을 이제는 열심히 설명을 해야 간신히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악론(樂論)의 뒷받침을 받아오던 우리의 전통음악은 구한말의 혼란과 일제의 침탈로 그 틀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러한 격심한 변화와 때맞춘 서양음악의 유입은 우리음악의 전승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심지어는 그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가곡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려졌다 하더라도 낡은 분야로 치부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적 무관심과 교육부재로 인해 멸절 위기에 처해 있는 장르 속에 엄청난 보석이 숨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정가(正歌)란

옛 선비들은 학문에 정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격수양을 위해 엄격한 절제미를 갖춘 음악을 몸소 익혔습니다. 그들이 익히고 부르던 노래를 정가라고 하며, 이 정가라는 장르에는 가곡(歌曲), 시조(時調), 가사(歌詞)가 있습니다.

판소리, 범패와 더불어 한국 3대 성악 중 하나인 가곡은 그 연원을 고려 시대 혹은 그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엽(大葉) 혹은 '한잎'이라고도 불린 가곡은 부르는 빠르기에 따라 만대엽(慢大葉), 중대엽(中大葉), 삭대엽(數大葉)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조선 고종 때에 와서는 너무 느린 만대엽과 중대엽은 사라져버리고 삭대엽만 남게 되었으며, 그 삭대엽은 많은 곡들을 파생시켰습니다. 완벽한 음악적 구성뿐만 아니라 탁월한 예술성을 갖춘 가곡은 인간의 목소리와 사죽(絲竹)의 느릿한 어우러짐으로 중화(中和)를 추구하며 우리의 내면을 안온함으로 채워줍니다. 거문고, 가야금, 대금, 해금, 양금, 세피리, 단소, 장고 등을 담당하는 율객과 가객이 정해진 틀을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연주하는 가곡, 그 가곡으로는 현재 남창 26곡과 여창 15곡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시조라는 말은 조선시대 영조 때 문인 신광수(申光洙)의 <석북집(石北集)>이라는 문헌에 보이는 어휘로, 원래는 문학의 부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발생한 음악곡조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악과 문학에 시조라는 말이 두루 쓰이다 보니, 경우에 따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음악적으로는 시조창, 문학적으로는 시조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학적으로는 구절의 다과에 따라 평시조, 엇시조, 사설시조 등으로 구분하며, 음악적으로는 가락의 구성 혹은 중요 표현음의 높낮이에 따라 평시조, 지름시조, 중허리시조, 우조시조 등으로 구분합니다. 시조는 가곡에 비해 형식이나 창법이 비교적 단순하여 단소나 대금의 수성가락을 곁들이거나 장고장단 심지어는 무릎장단만으로도 쉽게 부를 수 있는 소박한 노

래로 여유로운 선비의 풍모를 엿볼 수 있는 우리 전통성악의 또 다른 장르입니다.

가사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발생한 노래로 추측됩니다. 노랫말은 가곡과 시조에서 불리는 시조시가 아니라 장편의 비정형 사설 혹은 시가(詩歌)입니다. 그 가락은 가곡이나 시조에 비해 시김새가 많아 더욱 화려하며, 민속악적 창법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현재 12곡이 전승되어 이를 12가사라고 부릅니다. 정가에 작은 장르를 하나 더 보탠다면 대개 칠언(七言)으로 된 한시를 독특한 선율에 얹어 부르는 '시창(詩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석화된 몇 개의 가락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심한 세월이 그렇게 귀중한 것들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정가와 함께 가는 길

정가가 우리음악의 한 부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꽤나 적습니다. 아마도 자기 수양을 지향하는 음악이기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힘들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가를 향유하던 계층이 무너져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빠른 템포의 외국음악이 유입되자 삶을 관조하는 듯 넉넉하고 느릿한 정가의 가락과 장단은 고루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발산음악만이 음악의 전체인 양 세상을 휘몰아치는 이때에, 중(中)과 화(和)의 세상을 열어 줄 정가를 탐구하는 것이 우리음악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뿐만 아니라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으로 병든 현대를 치유하고, 조금하고 편협해진 우리의 품성을 가다듬어 줄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멸절 위기에 처한 정가를 자신의 동반자로 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무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우리 뼈와 피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노래 정가를 우리 자신이 외면한다면, 결국 정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가의 길, 그 길은 세상 속에서 거의 지워졌지만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렵니다. 미국 시인 프로스트(R. Frost)가 자신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에서 말한 것처럼. "숲 속에 두 길이 나 있었다. 그런데 나는... /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 /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라고.

장자(莊子)가 제물론(齊物論)에서 그 길을 말했습니다.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길이란 그곳을 다니니까 생기게 마련이다) 스페인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Antonio Machado)도 자신의 시 "나그네(Caminante)"에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보게 나그네여 / 길이란 당신의 발자국일 뿐 / 길은 본래 없소 / 길은 걸어서 생기는 것이고 / 걷다 보면 길이 나는 게지" 人間



회원&연구원소식

■ 회원소식

• **신속히 우먼타임스(주) 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한국경제신문과 숙명여대가 주관한 CEO블루오션 과정에서 숙명여대 총장상을 수여 받았다.

• **삼익LMS(주)(부회장 심갑보)**는 지난해 12월 14일 일본 스미토모(住友)그룹 계열의 (주)키리우(대표 나카가와 토시오)와 자본합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합작으로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관련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함으로써 선진부품 설계기술 도입과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 **삼화페인트(부사장 윤석영)**는 지난해 12월 29일 비점착성 도로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 회사측은 이번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관공공사 등의 수주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화페인트는 경기도가 환경개선실적, 환경의식제고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제6회 경기환경그린대상'에서 수질분야 수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 **웅진그룹(회장 윤석금)**은 지난해 12월 29일 김준희 웅진싱크빅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김정식 웅진해피콜 대표이사 상무를 대표이사 전무로 승진시키고 4명의 신규임원을 선임하는 등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한편 윤석금 회장은 설을 맞아 설 사랑을 나눠요' 위문사업에 동참해 백미 200포대(80kg들이)를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 **김영덕 회원(전 삼립식품 사장)**은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유섬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주 소 :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9층
- 전 화 : 02-425-3131 / · 팩 스 : 02-425-3360

• **(주)태창가족(사장 김서기)**은 올 들어 생맥주전문점 '쫄쫄까'의 인테리어를 크게 바꾸는 등 점포 리뉴얼을 단행하였다. 가족고객이 많은 점을 감안, 인테리어 컨셉트를 응접실 개념으로 바꾸고 메뉴도 기존 안주 위주에서 스파게티, 죽 등 식사메뉴를 대폭 보강한 쫄쫄까는 앞으로 기존 주책가 위주의 출점 전략에서 벗어나 다운타운으로도 진

출해 대형 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 **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보안성이 뛰어난 IC 카드 기반의 신개념 전자통장인 'e-모든 통장' 서비스를 1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지난 1월 17일 특구 내 유망기업에 대한 공동투자 및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 **삼성석유화학(사장 허태학)**은 지난 1월 22일 울산사업장 잔디광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설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마련해 윷놀이,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등 잊혀져 가는 고유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우리금융그룹(회장 황영기)**이 펴낸 '2006년 국내금융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 은행권은 금융그룹 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빅3체제'로 재편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설 연휴 기간 대여금고 무료이용과 정액 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등 대 고객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비틀맵(사장 김은영)**은 2006년 1월호를 시작으로 월간 비틀맵 영일판의 일본 현지 판매를 시작한다. 현재 비틀맵 영일판이 입점되는 서점은 Kinokuniya, Maruzen, Sanseido 등으로 향후 일본 전역으로 그 배포망이 확대될 예정이다.

• **윤백중 삼화비닐(주) 대표이사**의 자제인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윤석진 교수는 우주관측위성이 보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상성단들의 이중 색분포현상'의 기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데 성공하여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 **월간 골프가이드(사장 강민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한국·말레이시아 친선 국제골프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

- 일 시 : 3월 2일 ~ 3월 7일(5박6일)
- 장 소 : 말레이시아 페랑상 템플러 골프클럽
- 참가범위 : 총240명(말레이시아VIP 및 한국측 참가자)
- 참가비 : ₩840,000 (모든 경비 포함, 단 가이드 팁, 전용차량 기사 팁 불포함)
- 문의처 : 02-417-0030, 011-289-5070

■ 신규회원

장세화 (주)대교 대표이사(법인회원)

· 주 소 :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21
 눈높이보라매센터
 · 전 화 : 02-829-0487
 · 팩 스 : 02-829-0789
 · 업 종 : 교육서비스업
 · 추 천 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여호영 (주)지아이에스 대표이사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452-8
 · 전 화 : 02-786-6000
 · 팩 스 : 02-786-7860
 · 추 천 인 : 공한수 Big Dream&Success 사장



김한수 투자은행BDA 한국대표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현대벤처텔 709호
 · 전 화 : 02-2192-4451
 · 팩 스 : 02-2192-4454
 · 업 종 : 인수합병 및 투자
 · 추 천 인 : 이종원 다영산업개발 사장



이용원 주5일넷(주) 사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4
 로즈데일 1116호
 · 전 화 : 02-3413-3434
 · 팩 스 : 02-3413-3437
 · 업 종 : 여가정보제공 및 부대사업
 · 추 천 인 : 김봉중 주5일넷 대표이사
 엄경애 LMI Korea 사장

남창우 외환은행 여의도남지점 지점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
 · 전 화 : 02-782-1415(구내100)
 · 팩 스 : 02-784-9945
 · 업 종 : 은행업
 · 추 천 인 : 이종원 다영산업개발 사장

*추천해주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소모임소식

· **지중해 클럽**에서 지난 1월 18일 인 마이 메모리에서 1월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 **차이니클럽(회장 홍순영 / 한국외교협회 고문)**은 지난 1월 1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2006년 신



년모임을 갖고 클럽의 신년 사업활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날 모임에서는 20여명의 참가자들이 "2006년 중국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 / (주)성도GL 사장)**는 지난 1월 23일 삼성동에

위치한 채근담에서 1월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모임에서는 심종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가 "2006년 노사문제와 사람경영"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으며, 20여명의 참가 회원



들이 돌아가면서 올 한해 소망과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그 동안 부회장과 총무를 맡아 수고해주신 최석태 창우커뮤니티플래닝 부회장과 김창호 상천에덴스포츠타운 대표를 대신해 부회장 최우영 성원개발(주) 사장, 총무 전병문 (주)리더홀딩스 사장이 선출되어 수고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이중1그룹(회장 유상옥 /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지난 1월 23일에 신사동에 위치한 진동집에서 제222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이용국 신원헬트공업 회장**의 차남 성해군의 결혼식이 지난 1월 15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의승 이사장	(2월 1일)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이종원 회장	(2월 1일)
SH공사	이철수 사장	(2월 1일)
VERONICA CASS	오경근 원장	(2월 7일)
KOREA ACADEMY		
GE KOREA	이채욱 회장	(2월 22일)

■ 연구원 소식

• Club風流 창립 준비모임

2006년 새롭게 선보이는 소모임 Club風流(클럽풍류, 가칭)의 창립 준비모임이 지난 1월 25일 본원에서 열렸다. 심신수련을 통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친목모임인 Club風流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는 모임의 취지에 동참하는 회원 10명이 참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참가 회원들은 향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문화지식병영 시범사업출범



▶ 문화지식병영 시범사업으로 55사단에서 병영도서관 문을 열었다.



▶ 김태교 사단장으로부터 도서관 현황을 듣고 있는 관계자들

본원이 지난 송년모임을 통해 발표한 '軍隊를 軍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문화지식병영을 통한 인재육성사업'의 시범사업이 드디어 출범하였다. 지난 1월 24일 육군 55사단에서는 김태교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장만기 본원 회장, 박세직 한국청소년마을총재, 김영관 거북엔지니어링(주) 사장, 양종관 남서울대 교수 등 본원 회원, 김성재 사랑의 책나누기운동본부 대표, 교보문고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보문고에서 기증한 도서 3000권을 구비한 '병영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만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문화지식병영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이 전개되면 군 지휘관들의 리더십 배양은 물론 장병들의 자기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부대로 선정된 55사단에서는 '군에 입대하면 시대에 뒤쳐진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교 사단장도 "이번 사업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으로 불리는 군생활 동안 자기개발과 창조적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선진 병영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원은 앞으로도 육군 66사단과 육군보병학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통해 군에 대한 사회전반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 2006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본원은 2005년도 감사보고와 2006년 사업보고를 위한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기이사회

일시 : 2월 17일(금) 오전 7시 30분
장소 :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별부름

• 정기총회

일시 : 2월 23일(목) 1441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직후
장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문의 : 02-2203-3500

■ 지자체소식

• '부평아카데미' 개설

인천 부평구청(구청장 박윤배)과 본원은 2006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평생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부평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다. 1월 25일 엄길청 경기대 교수의 "부자의 자기경영학"을 주제로 한 첫 강연을 시작으로 2월 22일 서상록 前 삼미그룹 부회장의 "21세기 변해야 산다", 3월 15일 윤방부 연세대 교수의 "윤방부 박사의 생활건강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통합거제 고로쇠약수 마라톤대회

거제시(시장 김한겸)는 2월 19일 제5회 거제고로쇠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거제시 동부면 학동 몽돌해수욕장에서 시작해 가배마을을 반환하는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거제의 쪽빛바다를 배경으로 동백꽃을 보며 달리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 통영 섬사랑 공모전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천혜의 자연경관인 통영의 바다와 섬의 아름다움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통영굴 전국에 소개하는 '섬사랑 디지털 사진작품 공모전 및 굴을 소재로 한 플래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최우수상에게는 통영시장 상패와 고급 디지털카메라가 수여되며, 우수상에게는 상패와 자연산 전복이 수여된다.

• 제천 의림지 겨울페스티벌

제천시(시장 엄태영)가 주최하고 제천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2회 의림지 겨울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끝났다. 1월 20일~23일까지 3일간 의림지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다소 포근한 날씨 속에서 연인원 5만여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은 휴일을 맞은 부모님과 함께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극지체험장을 찾아 즐거운 겨울나기를 즐겼다. 의림지 겨울페스티벌의 백미인 얼음마라톤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1200여명이 참가해 건강을 과시하며 겨울을 만끽했다.



▶ 롯데연수원 EPP 과정에서 안효열 FT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그룹 중앙연수원 간부 사원 10명 성공하는 리더의 EPP 과정 수료식 가져

'LMI EPP 프로그램으로 제2의 도약 준비합니다'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는 법입니다."



▶ 김정달 원장을 비롯한 교육참가자들이 수료 후 자축하고 있다.

롯데그룹 중앙연수원 김정달 원장이 8주 동안 진행된 EPP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을 참여한 후 한 말이다. 그 동안 중앙연수원의 직원들은 그룹 차원의 교육을 실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라 스스로를 교육하는 데는 소홀히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원장은 한국LMI의 EPP(Effective Personal Productivity)를 채택하게 된 것은, 중앙연수원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 인적자원이 가장 소중한 지식사회의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터 드러커는 앞으로 모든 조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Productivity)을 향상하는 것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수원의 각 부서와 구성원이 독자적인 목표와 업무 계획을 설정해 책임 경영을 실행함으로써, '성과로 그룹사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연수원의 간부 사원 11명이 참가하는 EPP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의 EPP 교육소감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번 교육에 '연수원의 만행'으로서 최고의 모범과 리더십을 보여준 최석기 부장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의사소통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작은 것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 전에는 내 일이 아니라고 관심을 갖지 않던 부분도 나서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김정달 원장도 강조하는 부분이다. 문동길 팀장 등 다른 11명의 참가자들도 모두 의미있는 소감을 발표해주

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자생존(목표를 기록해둔 사람이 성공한다)의 중요성,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아는 것의 중요성', '긍정적 사고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감정입입의 필요성' 등이었다.

참가자들 대부분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이나 가정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됐다고 했다. 회사 일로 건강을 해치면 아픈 몸을 회사에 남겨놓고 퇴근할 수 없으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집에 놔두고 출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EPP과정에 포함되는 LMI 석세스 플래너를 활용하는 연습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숙명여대 EPL 4기 수료식



지난 1월 5일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학'을 지향하는 숙명여대에서 숙대 EPL(퍼스널 리더십) 4기 수료식이 있었다. 이 날 목은균 특수대학원장, 김재영 평생교육원장, 한영실 사무처장 등 교수 10명이 16주 동안 EPL 교육 과정을 이수해 축하를 받았다.

한편 이경숙 총장 등 숙대 교수 30명은 이미 EPL 과정을 수료한 바 있으며, 이번 과정은 정진호 경쟁력평가원장이 교육진행(FT)을 맡았다. 수료식에는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엄경애 한국LMI 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LMI 소식

1. 제 66기 EPL 과정 수료식

- 일시: 1월 7일 / 대상: 기업체 CEO 등 7명
- 지도교수: 안효열(LMI FT, 한국코치협회 이사)

2. 제 66기 EPL 과정 수료식

- 일시: 1월 19일 / 대상: 안주섭 한국코치협회장 등 11명
- 지도교수: 안효열(LMI FT, 한국코치협회 이사)

BIG DREAM&SUCCESS 제27차 수료자 모임

- 일시: 1월 16일
- 강사: 문용린(서울대 교육학과,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주제: 삶의 질과 평생 교육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대통령의 편지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축하한다."

"뭬?"

"대통령께서 네가 쓴 책을 공무원들에게 한 번씩 읽어보래."

행정자치부에 다니는 친구가 전화를 해주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용을 읽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주식회사 장성군> 책을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다고 권유한 게 아닌가. 이른바 대통령 추천도서 가 된 것이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다. 물론 이 책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혁신 이야기를 다룬 만큼 공무원들이 읽어 보면 좋겠다는 저자로서의 소박한 바람이 있었다. 더욱이 대통령께서 읽어본다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야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메일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한다. 그런데 책을 읽은 소감을 밝히며 강력하게 추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얻어

청와대의 이원덕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대통령께 "책을 한 번 읽어 보시라"고 추천했다고 알려졌다. 이 수석께서는 장성군의 명품으로 자리 잡은 '장성아카데미'에 강의를 다녀온 후 깊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노동연구원장 시절에는 '장성군의 성공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전문가들에게 지시한 경험이 있어서 장성군의 성공사례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통하고 있었다. 이런 인연 때문에 평소에도 장성군 홍보대사임을 자처하며 "장성군과 같은 성공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지자체가 발전하고 공무원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성경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들의 힘이 모여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뜻이다. 대통령 편지의 기적은 <주식회사 장성군> 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격려와 사랑이 청와대 까지 흘러가 대통령을 감동시킴으로써 가능했다고 믿는다.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대통령까지 감동하여 편지를 보냈을까?" 편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 첫 번째가 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김홍식 장성군수는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공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교육에 투자를 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전국의 유명 강사를 장성으로 초빙하여 '장성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공무원과 주민 500여명이 학습조직을 만들어 학습하는 것을 생활화했다. 지난 해 말까지 474명의 내로라하는 강사들이 다녀갔다. 또 공무원들을 매년 3박 4일씩 기업의 연수원에 보내 집체교육을 받도록 했다. 나아가 전공무원을 유럽에 배낭연수를 보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도록 했다. 우물 안 개구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를 보며 의식의 변화를 유도했던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전문을 넓힌 공무원들의 생각이 변하여 '주식회사 장성군'을 탄생시켰다. 주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서비스가 체질화되어 주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하다.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하여 주식회사 장성군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급기야 기

업인들을 감동시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청업체들이 장성군으로 몰려와 중소기업업체의 메카로 등장했다.

행정에 접목된 경영마인드가 변화의 핵심

모든 일이 그렇듯 장성군 투자유치의 성과도 일선 공무원의 헌신과 열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투자유치 담당 계장이 한 기업체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장성으로 기업을 유치해 많은 기업들이 몰려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엇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토지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보통 2주일 이상 걸리는 데 장성군에서는 하루만에 처리해 주었다. 담당자가 서류 봉치를 직접 들고 11명의 심사위원들을 찾아가 서류를 처리해 주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고 한다. 허가를 받고 공장을 지어서 상품이 나오기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하는 기대감이 생겼을 정도였다. 그 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강조했다.

"여기 공무원은 다릅니다."

"우리 정부가 장성군처럼만 도와준다면 기업인들이 무엇 때문에 해외로 나가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장성군을 벤치마킹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길 겁니다."

대통령의 편지가 알려진 후 장성군을 방문하는 견학인파가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 외에도 기업체 임직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NGO단체 등에서도 장성군을 배우러 달려오고 있다.

대통령이 보낸 편지는 장성군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이룩한 혁신 성공사례에 대한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편지의 전문을 실는다. **人間**

공무원에게 보내는 노무현 대통령 편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마음에 다짐한 일들 모두 이루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초에는 혁신에 좀더 속도를 내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해주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전남 장성군의 혁신과 변화를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 행정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것과는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혁신이라는 일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하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각이 되고, 조직의 혁신 차원에서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이 책이 주는 시사점입니다. 우리의 혁신과정에서 교육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좀더 많은 사람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IMD 평가에서 정부경쟁력이 36위에서 31위로 5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수준이나, 우리 경제와 기업이 받는 평가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는 혁신에 관한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정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의 브랜드로 내놓도록 합시다.

새해, 출발이 좋습니다. 국가적인 상승세와 경기회복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사회가 앞장서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2006년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도 알찬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06년 1월 9일

대통령 노무현

새벽에 일어나서

김후란 시인 / 문학의 집 · 서울 이사장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
화선지에 묵화墨畵 한점 띄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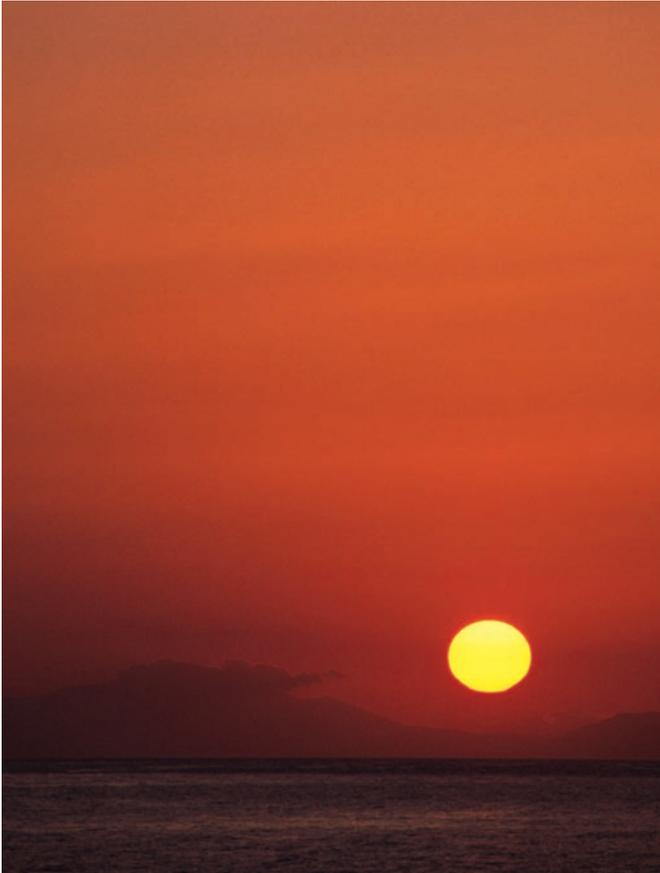
열어놓은 창으로
밝아오는 날의 정기精氣를 느끼며
오늘 하루
내일 또 모레 글피
모든 날 모든 가정 이웃과 나라의
평안을 생각하며

가슴 벅찬
희망의 뿌리를 꺼안는다

은혜로운 자연의 순환 속에
할일 많은 세상 마음이 바쁘다
그 많은 별중에 사랑으로 만난 우리
그래, 오늘도
힘있게 일어선다.



김후란 시인 1934년 생 /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 / 한국일보 기자, 부산 일보 논설위원 등 20여년 언론생활 / 한국시인협회 위원 /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 최은희여기자상 심사위원장 /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이사장 / 성숙한 사회가꾸기 공동대표 /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 서울 이사장 / 시집 : 장도와 장미, 어떤 파도, 서울의 새벽, 우수의 바람 외 수필집 다수



개띠 해(2006년)의 전망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2006년, 세계와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떤가. 명암이 교차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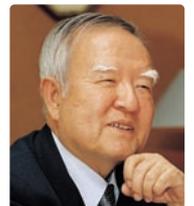
국제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새해가 밝은지 이제 겨우 2주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이 터졌지만 좋지 않은 일이 많다.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에 관한 공세를 폈다. 앞으로 자원(資源)전쟁이 치열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이라크에서 연일 일어난 폭발은 앞으로의 내전 위험을 시사하고 있다. 쌍둥이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경제의 불균형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다. 중국은 달러의 보유액을 낮추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일단 미국을 안심시켰다. 리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6자회담의 앞날이 밝지 않아 보이지만, 혹시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회담의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남미 볼리비아에서는 좌파 대통령이 미국을 악의 축이라고 했다. 평화를 주도하던 이스라엘의 샤론 수상이 쓰러져서, 이-팔 사이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일본수상은 '일개정치인'의 마음의 문제를 외국이 간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속할 뜻을 비쳤다.

이 모든 사건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미국의 행보에 관련되어

있다. 미국은 앞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본을 재검토하리라는 보도도 있다. 요는 세계는 이제 미국 一極으로부터 多極으로 치닫고 있는데, Superpower 미국이 이것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발 평화적으로 생각해 주기 바라지만 전혀 낙관할 수 없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신년 메시지에서 중국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사령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좋은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잘해야 세계가 편하고 세계가 편해야 중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주간 국내에서도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유의 당부(當否)는 고사하고, 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해를 넘기면서 등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태는 보통 일이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걱정된다. 황우석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 '조건부' 사과인 것 같기도 하다. 경제면에서도 증시가 급등하고 환율이 급락하는 사태는 좋은 일이 아니다. 증시의 급등이 꼭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투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투자적(投資的) 동기보다도 투기적(投機的) 동기에 의한 주식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는 불안해진다. 환율의 급락은 우리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설사 수출이 잘 된다고 해도 수출로부터의 수익률은 줄어서 실속이 없는 수출이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주름살이 와서 출혈수출을 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지난 2주간의 국내외 정세는 개띠의 1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 같은데, 나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국민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어려움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人間**



농업은 흥이요, 정신이다.

한사랑 농촌문화상

그늘진 곳에서 농업과 농촌문화 발전에 헌신 기여하고 있는
진정한 숨은 애국자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지원 격려하고자 합니다.

강진소재 - (서울) 영동농장 700,000평 전경

• 시상분야

농업경영, 농촌기술교육, 농촌협동지원, 농촌지도봉사 등

• 제출서류

추천서(소정양식), 공적서(소정), 업적자료, 사진3매

• 서류접수마감

2006. 2. 20 까지

• 시상일시

2006. 4. 20(목) 오후 6시

• 전국 초중고등학생 농촌사랑 백일장 대회 시상

2006. 3. 15 까지 학생작품 접수, 같은 날 함께 시상

사무국 전화 : 02) 437-2219, 438-2723

홈페이지 : www.e-hansarang.org

한글주소 : 한사랑재단



(재단법인)

한사랑농촌문화재단

이사장 김 용 복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한사랑농촌문화재단 및 영동농장, 용복장학회, J&K미생물 연구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가 담긴
친환경페인트를 만듭시다

페인트업계 환경마크 최다 보유기업! 삼화페인트

가족의 건강과 함께 자연의 건강까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친환경품질인증 "최우수등급"과 함께 업계최다 환경마크 획득으로 앞서가는 삼화페인트!
늘푸른 친환경페인트로 우리의 미래를 해맑게 열어갑니다.



친환경경영대상



창립 60주년

SAMHWA

삼화페인트공업(주)

고객상담실 1544-5357